부처님 은혜 생각하며 정진의 고삐 놓지말라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대종사



眼中無翳休挑括〈안중무예휴조괄〉하고
鏡中無塵不用磨〈경중무진불용마〉어다.
信足出門行大路〈신족출문행대로〉에
橫按拄杖唱山歌〈횡안주장창산가〉로다.
唱山歌兮 〈창산가혜〉여!
山是山(산시산) 水是水(수시수)로다

눈 가운데 티끌 없으니 긁으려 하지 말고
거울 가운데 먼지 없으니 닦으려 하지 말라.
발을 디뎌 문을 나가 큰 길을 행함에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산 노래를 부름이로다.
산노래를 부름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금일(今日)은 임인년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이라.

결제에 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到來)하였도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멈추지 않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감이라.

금일 해제일에 이른 지금, 대중 모두가 금빛사자의 포효(咆哮)를 하고 승천(昇天)하는 용의 트림을 내보여야 할 것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해제일이 되었다고 산천(山川)을 유람(遊覽)하고 허깨비처럼 행각(行脚)을 나설 수 있겠는가!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話頭一念)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습관처럼 좌복(坐服)에 앉아서 번뇌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침(昏沈)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방일(放逸)한다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가 출현해서 깨달을 수 없음이라.

다시 마음을 다잡아 부처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발심(發心)하고 발심하여 정진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지어다.

〈하략〉

"마음이 곧 부처…부처로 부처 구하지 말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本 佛性(본 불성)에 實無一物(실무일물)이라 虛通寂靜(허통적정)하여
明妙安樂而已(명묘안락이이)니 深自悟入(심자오입) 하면
直下便是(직하편시)라 圓滿具足(원만구족)하며 更無所欠(갱무소흠) 이니라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요하며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目前一物(목전일물)은 無尾亦無頭(무미역무두)라
出入同來往(출입동내왕)하고 窮尋寂寞(궁심적막)이라
눈앞에 있는 한 물건은 꼬리도 없고 또한 머리도 없다.
출입할 때 나를 따르지만 찾아보면 흔적이 없다.

求之轉失(구지전실)이요 動念卽乖(동념즉괴)니
學道人(학도인)이 若欲得成佛(약욕득성불)인대
一切佛法(일체불법)을 摠不用學(총부용학)이요
唯學無求無着(유학무구무착)이니 無求(무구)하면 卽心不生(즉심부생)이요
無着(무착)하면 卽心不滅(즉심부멸)이라 不生不滅(불생불멸)이 卽是佛(즉시불)이니라.
구하면 점점 잃게 되고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니 도를 배운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이 곧 부처이니라.

心卽是佛(심즉시불)이며 佛卽是法(불즉시법)이니
不可以心(불가이심)으로 更求於心(갱구어심)이며
不可以佛(불가이불)로 更求於佛(갱구어불)이니라
求着卽轉遠(구착즉전원)이니 不求(불구)하면 還所目前(환소목전)이라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법이니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 것이며
부처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
〈하략〉

임인년 동안거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60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총 1920명(총림 232명, 비구 1065명, 비구니 623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했습니다. 2월 5일 동안거를 마치고 만행에 들어간 수좌들에게 방일함이 없는 정진을 당부하는 종정예하와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가 발표됐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http://www.hyunbulnew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작은 자비심이 큰 자비심 방해하노니…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구변설식종불포(口邊說食終不飽)하며.
신상착의방면한(身上着衣方免寒)이라.
입으로 음식을 말해도 배부르지 않으며
몸에 옷을 걸쳐야 비로소 추위를 면하네.

법화전거(法華全擧) 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이 만리로 아득히 펼쳐진 하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서릿발과 같은 한 자루 칼날로 휘두르는 본분사(本分事)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인들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학인이 절을 올리니 다시 선사가 말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자비심은 큰 자비심을 방해한다."
그리고 곧바로 방(棒)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자잘한 자비심을 베풀었다가 근본적인 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자비심은 친절한 언어로 전하지 못하는 경계를 할(喝)과 방(棒) 같은 혹독한 수단에 의지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앙산혜적은 "나는 남전보원 선사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선사가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했으며 또 대혜종고는 "누구든지 법에 투철한 안목이 열리고 나면 틀림없이 나의 친절한 설명을 매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향엄지한은 대나무에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깨친 후 "위산영우 선사께서 만약 나에게 말로서 다 풀어주셨다면 어찌 지금과 같은 경지를 얻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스승의 작은 자비가 아니라 큰 자비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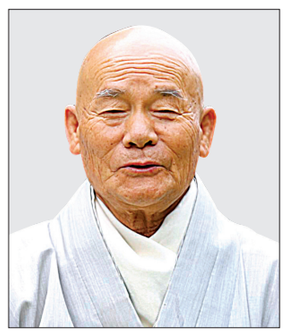
한 겨울 추위 속에서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할 수가 있습니다. 제불조사諸佛祖師가 옛날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또한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 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지만 하늘 바탕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진득노서(趁得老鼠)하다가.
타파유옹(打破油甕)하니.
소자방대자(小慈妨大慈)로다.
쥐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기름항아리를 때려 부셨으니
보잘 것 없는 자비심이 큰 자비심을 방해하는구나.

문 밖 십만 리 풀 한 포기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가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법 중에 법, 法王이여!
항하사 모래 수만큼 많은 여래가 모두 이 法을 증득하였도다.
이 주장자 머리에서 모든 부처님이 다른 입, 같은 목소리로 法輪을 굴리시네.
눈 깜짝 사이, 이 법을 원만성취하고 찰나지간에 삼아승지겁의 업장을 소멸시키네."
-만공스님 법문-

이 일은 넘치는 우주의 에너지, 하늘 땅 전체의 한 덩어리 힘으로 은은히 표시 없이 밀어붙일 뿐입니다.
一念萬年 일찍이 動한 적이 없네. 한 방울도 샐 틈이 없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자. 나를 빼버리면 텅 텅 비어 자유스럽다.
本地風光 얼마나 통쾌한가!
이 사실이 너무도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놓아버릴수록 온전하고 자유스럽다.
져주자! 老僧의 한 수입니다.
응용단계까지 못 미쳤나? 아차, 動해버렸네.
앞서려고 하다가 중생심 못난이가 되어 놓친다.

젊고 늙고 이 몸 地水火風은 바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집착에 굳어져 있으면 바람이 약해집니다.
달마스님은 觀心一法
관심, 이 놈이 뭘까? 이 한 법이 큰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주자. 따뜻한 바람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광대행으로,
벌떡 일어나 평펑 솟아나는 샘물,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
이 물건이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허공은 本來淸淨
먼지, 티끌, 비바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한가해집니다.
끝없는 청정허공, 무진삼보 대자대비
가고 오고가 없는 만물의 근거, 의지처
꽉 차있는 원기덩어리
청정 일번지 수덕사가 그 허공입니다.
경허스님 만공스님 제대 선지식이 그 허공입니다. 〈하략〉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배(시왕재)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